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07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6.30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창립 4 주년 기념예배

오늘은 창립4주년 기념예배로 평소 주일예배와 순서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감사와 찬양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찬양 앙상블토브&전정민&이건명

다와서 찬양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영혼이
은혜

특주 앙상블토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슬픔이 기쁨되어
주님 찾아 오셨네

말씀과 나눔

말씀교독 "사도행전 1:12-26" 다같이

말씀권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다같이

♩. = 32

F C7 Dm Bb C F(sus4) F

[선창]

4 F C7 F Gm Bb F C7

이 말 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지 치 지 않 - 게 하 시 고

8 F A7 Dm Bb F/C Bb/C F

이 말 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주 님 나 라 이 루 소 서

12 B F [회중] C7 F Gm Bb F/C C7

이 말 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지 치 지 않 - 게 하 시 고

16 F A7 Dm Bbm F/C Bb/C F

이 말 씀 따 - 라 사 는 동 안 주 님 나 라 이 루 소 서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주의 은혜라”.....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하케이크..... 다같이

단체사진촬영..... 다같이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2-13 사도들이 올리브 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킬로미터가 채 안되는 길이였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4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15-17 그때에 베드로가 일행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방 안에는 백이십 명쯤 있었다. “친구 여러분,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를 체포한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성취되어야 했고,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었습니다.

18-20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뇌물로 받은 악한 돈으로 조그마한 농지를 샀는데, 거기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살인의 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농지가 흉흉하게 되어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나중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21-22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후임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23-26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다. 일명 유스도라 하는 요셉 바사바와 맛디아였다. 그들은 기도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유다가 제 갈 길을 가려고 버린 이 사역과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맛디아가 뽑혀서 열두 사도 중에 들게 되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행 1:12-26〉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밧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밧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파밭이라는 뜻이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blog.naver.com/suneun0691

Words & Music by 손경민

FM7 Em7 Dm7 C/E

5 FM7 C/E Dm7 F/G G

10 C Em F G 내 평
생 살아 온 길 뒤 돌아 보니 짧은

14 C Em F G7 C C/E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18 FM7 C/E FM7 C/E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 온 길 주의

22 FM7 E/G# Am7 Em7 FM7 G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

27 G7 C Em F G
달려 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32 C Em F G7 C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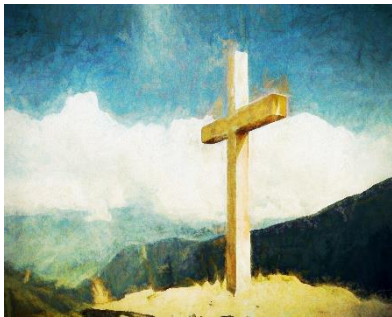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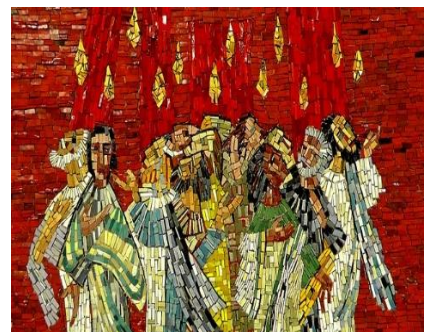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앙상블토브



오늘 예배에 함께 한 사람

가야금 : 김고은
바이올린 : 유지희
서도민요 : 전효정
피리 : 이빛내리
피아노 : 홍정현
해금 : 조은혜
음향 : 김민우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목교회 창립4주년 감사

2020년 길목교회가 시작되어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길목교회 공동체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기억하시고 찾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길목교회 공동체가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공동체로 선교적 목표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같이 식사 후 기념품도 꼭 받아가세요.

양상블 토브 감사

오늘 창립4주년을 맞아 양상블토브팀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배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멋진 사역 기대합니다

성경통독 여름수련회

언제 - 727(토)~30(화) [27(오후3시)-28(하루종일)/ 29-30(저녁7시-11시)]

방식 - 성경통독 수련회, 장소 - 길목교회 본당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길목교회 예배당 장소 사용 안내

KCC모임 (7월7일 주일 오후3시~8시)

평신도쭈바이블 (7월15일 오전10시30분~오후12시)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